

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가. 제 출 자 : 이종열 외 4,455명

나. 소개의원 : 이은림 의원

다. 청원번호 : 제 36 호

다. 접수일자 : 2025. 12. 9.

라. 회부일자 : 2025. 12. 11.

2. 청원요지

- 동부간선도로 확장(3공구)공사 중 2018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상도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으로의 임시 진입로가 공사 완료 후 철거됨에 따라 현재 상도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직접 진입이 불가능해졌고 주민들이 수락고가를 통해 우회진입을 할 수 밖에 없어 교통혼잡 및 이동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진입램프 신설을 청원함.

3. 주요내용

- 상도지하차도 공사 당시(2018년)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상도교 진입로가 공사 완료 후 철거되면서 현재는 상도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으로 직접 진입할 수 없게 되었음.

- 이로 인해 주민들은 평균 800m 이상을 우회하여 수락고가를 이용해야 하며 수락고가 진입로와 마들로~노원교 사거리 구간 등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량이 더욱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- 이러한 구조적 불편으로 주민들은 통행 동선 증가, 이동시간 지연, 안전사고 위험 확대 등 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교통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역 이동권도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.
- 이에 주민들은 상도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으로 바로 연결되는 진입램프의 재설치를 요청하며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행정절차의 신속한 착수를 요구함.

4. 청원소개 의견 요지(소개의원: 이은림 의원)

-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설치를 통해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본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함.
- 본 청원은 현재 상도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으로 직접 진입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교통 불편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것임.
- 상도지하차도 공사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상도교 진입로가 철거됨에 따라 상도교에서 동부간선도로(성수방향) 직결이 단절됨.
- 이로 인해 수락고가 우회 진입에 따른 교통량 집중, 마들로 및

노원교사거리 일대의 정체 심화, 이동시간 증가 등 주민들의 반복적인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.

- 우회 동선은 평균 800m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 혼잡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.
- 상도교 진입로 신설을 통해 동부간선도로 진입 동선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수락고가 및 마들로 구간의 교통량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. 특히,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, 통행시간 절감, 도로망 효율 개선 등 실질적인 교통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.

5. 검토의견

- 본 청원은 상도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으로의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진입램프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으로,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2018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상도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의 임시 진입로를 철거함에 따라 야기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.



[그림]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으로의 진입(현재)

- 해당 임시 진입로는 2018년 동부간선도로 확장(3공구) 상도지하차도 구간 공사 시행 시 상도교 노원구 방면 차로에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으로 설치·운영했었으나, 공사 완료 후 임시 진입로 철거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진입이 불가해졌음.

-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평균 800m 이상을 우회해 수락고가에서 진입해야 하며, 수락고가 진입로(교통량 9,200대/일)와 마들로에서 노원교사거리 좌회전 구간(교통량 3,500대/일) 등에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.
-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에서도 통행 비효율 및 교통정체의 심각성을 공감하여 상도교를 확장(우회전 전용차로)해 동부간선도로(성수방면) 진입 연결램프를 신설하는 진입로 설치방안에 대해 검토¹⁾한 바 있으며,
- 해당 검토결과,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설치 시 교통수요는 약 4,890대/일로 예측(2030년 기준)되었고, 마들로 및 노원교에서 수락고가 구간의 교통 소통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.

□ 진입로 설치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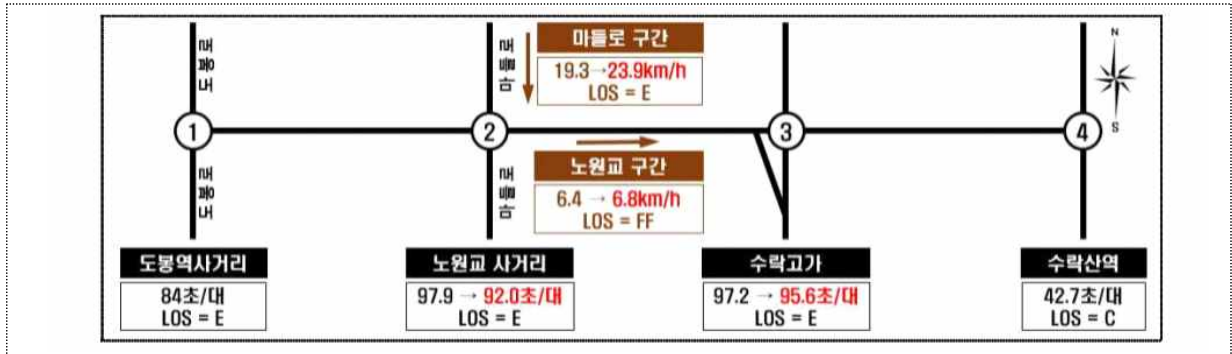
○ 설치 개요

- 위 치 : 상도교 ~ 동부간선도로(성수방면)
- 규 모 : 상도교 진입램프 신설 B=5.25m, L=452m
(상도교 확장 103m, 토공부 182m, 교량 신설 167m)
- 설치방안 : 상도교 확장(우회전 전용차로) 및 동부간선(성수방면) 진입 연결램프 신설
- 소요예산 : 약 300억원 (타당성조사 2.5억 + 설계 10억 + 공사 및 감리 287.5억)

○ 진입로 설치 시 교통 분석

-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설치 시 교통수요는 약 4,890대/일 예측(2030년 기준)
- 마들로 및 노원교→수락고가 구간 교통 소통 개선 효과

1)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, '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설치 검토('25.10.)'



- 다만, 현재는 절차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경제성 검토를 위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며, 사업 소요기간이 5년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원인들은 교통혼잡 해소와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해 조속히 타당성 조사와 사전행정절차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겠음.
- 본 청원이 요청하는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설치사업은 이미 2018년에 동부간선도로 확장 시 상도지하차도 구간 공사를 하면서 임시 진입램프를 설치·운영하였던 전적이 있는 만큼,
- 당시 임시 진입램프로 인해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주변 수락고가 진입로 및 마들로에서 노원교사거리 좌회전 구간 등의 교통량 분담효과 등이 일부 검증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,
- 서울시는 2018년 임시 진입램프 운영 당시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짐.